

## 치주염이 전신질환에 미치는 영향

서조영 교수 (Prof. Suh JY)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구강에 영향을 미친 치주질환들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세기를 넘어, 고대 이집트인, 유대인, 아시리아인, 그리스인, 그리고 로마인들도 전신건강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으며, 어떤 이는 치주염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은 역사와 의학의 초기부터 있었다고 주장했다.

20세기 초기에 의학과 치의학계에서는 왜 사람들이 많은 전신질환에 시달리는지를 설명할 이유를 찾고 있었으며, W.D. Miller와 William Hunter의 저술과 연구를 통해서, 구강세균과 감염이 전신질환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후 40년 동안 내과 의사와 치과 의사는 감염, 특히 구강에서 유래된 것들이, 인간의 고통과 질환의 대부분을 야기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는 구강 감염이 인류의 모든 질환을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구강 감염과 전신 질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약화되었다. 그런데 1989년 핀란드의 Kimmo Matilla와 동료들이 발표한 일련의 논문들에 의해 치주 질환과 같은 구강 감염이 전신 질환을 야기하는 기여 인자로 작용할 것이라는 개념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치의학계 과학자들은 치주염이 전신 질환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관심을 쏟았으며, Offenbacher, Page, Loesche, Genco, Beck와 그 동료들 등, 몇몇 과학자는 치주염과 치은연하 혐기성 세균 감염 등은 혈류를 통해 떨어진 부위나 장기에 도달할 힘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현대의 역학조사 방법은 성인에서 만성 치주염과 관상동맥 질환, 조기 저체중아 출산, 당뇨병, 폐 질환과의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주 감염이 관상동맥 질환, 조기 저체중아 출산, 당뇨병, 폐 질환 등의 위험 요소로서 작용 가능성 및 작용 기전, 또한 치주염을 치료하는 것이 전신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전신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로서 치주염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 교수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및 석·박사

미국 펜실바니아대학교 연구교수